

音樂的 才能 開發을 위한 早期

音樂教育에 관한 研究

鄭 元 永

(本會 理事)

〈목 차〉

I. 서 론

A. 早期 音樂教育의 必要性

II. 理論의 背景

B. 音樂의 諸感覺의 發達과 早期 音樂教育

A. 音樂의 才能의 意味

C. 早期 音樂教育의 指導

B. 早期 音樂教育의 概念

IV. 결 론

III. 早期 音樂教育의 問題

I. 서 론

우리는 最近에 와서 「0歲부터의 才能教育」이라든지 「유치원에서는 이미 늦다」라는 등의 早期教育을 강조하는 말을 쉽게 들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學校 教育과 家庭 教育에 있어서 幼兒期의 知的 發達의 重要性和 方法의 問題가 美國, 日本, 歐羅巴 諸國에서 活發히 論議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教育界에 있어서도 近來에 와서 早期 教育의 重要性이 거론되고 있으며 특히 音樂을 비롯한 다른 藝能 部門의 早期教育 問題가 活發히 提起되고 있다.

音樂教育 面에서 幼兒期는 매우 重要的 時期이다. 그것은 音樂의 能力을 形成하는 여러 가지 能力中에서 가장 基礎的이며, 다른 能力보다 優先으로 해야 될 音樂感覺力이 이 時期에 가장 급속히 發達하기 때문이다.

感覺機關으로서의 聽覺機能은 幼兒期末 즉, 6歲경이 되면 거의 成人과 같은 水準까지 發達되며 音에 대한 高低의 判別力이나 리듬感收 能力도 幼兒期부터 兒童期の 初期

에 걸쳐서 가장 급속하게 발전한다.

이들 音樂感覺力은 音樂의 構成要素로서 基礎가 되는 旋律感, 리듬感에 깊이 연결된다는 意味에서 이 時期의 올바른 音樂教育은 무엇보다도 重要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幼兒期나 兒童期の 教育이 모든 教育의 基礎가 된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音樂教育에 있어서도 早期教育 또는 幼兒教育을 強調하게 된 것은 音樂的인 發達段階에 있어서 幼兒期가 이와같이 重要的 時期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兒童 心理學者인 장·피아제(Jegn Piaget 1896~1980)는 이 時期의 兒童는 發達이 빠르기 때문에 後日의 모든 認知의 하부구조 일체와 후일의 情意的 反應을 決定하는 태반의 반응을 이 時期에 形成한다고 주장했다¹⁾.

이와같이 知的인 面과 情意的인 面 뿐 아니라 藝能的 才能에 있어서도 幼兒期란 매우 重要的 時期이다.

그러나 幼兒期나 兒童期の 音樂教育은 音樂의 專門家를 만들거나, 職業的 演奏家를 만드는 것이 目的이 아니다. 音樂教育의 窮極的인 目標은 教養을 높이고 完全한 人格을 갖추게 하며 音樂을 통하여 情緒를 도야하고 生活속에서 音樂美를 追求하며, 그것을 自然스럽게 表現할 수 있는 機能을 연마하도록 하는데 있다²⁾.

本 研究에서 提示한 方向은 早期 音樂教育이 指向하는 하나의 方向을 提示했을 뿐 그 具體的이고 體系의인 方法은 다루지 못했다. 즉 早期教育의 概念과 音樂的 才能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早期 音樂教育의 必要성과 指導에 관하여 論하고자 한다.

II. 理論的 背景

A. 音樂的 才能의 意味

音樂適性(Musical Aptitude), 音樂才能(Musical Talent), 音樂性(Musicality), 音樂能力(Musical Ability) 등의 用語는 가끔 心理學 文獻에서 많이 混用된다. 同一名稱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의도하고 있는 바에 대하여 내용도 各各의 學者들의 見解의 差異가 있는 것이다. 이는 音樂 그 自體의 本質이 다양한 것과 같이 神秘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實態를 精確히 파악한다는 것이 극히 곤란하다는 것과, 또한 주관적으로 파악한다 할지라도 그 개념은 개인에 따라 다소 다른 觀點의 차이가 있는데에 기인될 것이

1) 피아제, 兒童心理學, 金在恩 譯, (서울: 益文社, 1972), p.11.

2) 劉永明, “音樂의 能力에 미치는 早期教育의 效果”(서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1973), p.2.

다³⁾.

이와같이 용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의도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학자들의 견해를 참고로 한다면,

(1) C.E. Seashore는 音樂의 才能의 心理에서 「音樂의 才能은 單要因의 才能이 아니고, 才能의 組織的 複合的 才能으로서 이들 要因들 間에는 서로 독자적인 기능을 갖는 것이다. 또한 재능은 本來 音感覺, 리듬感覺, 運動機能, 知的要所 등과 같은 그룹을 形成하고 있으며 각각 그 그룹의 範委內에서 우리들은 才能의 本質을 把握할 수가 있을 것이다.⁴⁾」.

이러한 점으로 보아 결국 흔히 쓰이는 音樂性이라든가 音樂能力과 같은 一連의 用語의 상위 概念으로서 「音樂의 才能」이라는 말을 使用했고 後天的으로 變化하는 것으로 定義짓고 있다⁵⁾.

(2) M. Schoen은 音樂性和 音樂의 才能을 論함에 있어 「音樂의 適性에는 感受와 表現의 두 面이 있는데 前者를 音樂性, 後者를 音樂의 才能」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부의 우수한 演奏만이 音樂的인 것이 아니고 演奏者 아닌 많은 일반인들도 다같이 音樂的이며, 兩者의 區別은 音樂의 技術의 問題라고 할 수 있다⁶⁾」라고 말하고 아울러 音樂의 天性和 音樂의 能力에 관해서는 「音樂의 天性이란, 先得的인 것이고 能力은, 演習이나 經驗에 의해서 後天的으로 얻어지는 것」⁷⁾이라고 指摘하였다.

(3) R. W. Lundin은 그의 著書인 音樂心理學의 實地에서 「音樂의 天性이란 音樂을 위해 잠재하는 先天的인 才能이며 또한 이는 우수한 音樂의 發達을 可能케하는 要所이다」⁸⁾라고 말하고 音樂의 才能과의 區別에 대해 다음과 같이 定義하고 있다. 「音樂의 才能이란 音의 高低, 長短, 和音 등의 判別力이나 視唱力 演奏能力과 같은 機能能力이며 演習에 의해서 그 程度를 높히는 것을 말한다」⁹⁾.

(4) G. Révész은 「音樂性的 基本的 要所란 演奏機能 등이 아니며 音樂의 創造的인 才能을 理解하고 解析하는 才能이다」¹⁰⁾라고 音樂性的의 개념을 말하고 音樂의 才能과 적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音樂의 才能과 音樂의 適性は 흔히 같은 의미로 해석되나 이 兩者는 명확히 구별되어 고려해야 한다. 前者는 인간의 活動 영역에 있어서의 특별한 분야로 평균 이상의 능력을 보이는 의미로 해석되고 後者는 演奏上의 適應力을 意味하는 것이

3) 柳德熙, 音樂教育論, (서울: 개문사, 1983), p.60.

4) Seashore, C. E., The Psychology of Musical Talent(New York: Silver Burdett Co), 1919.

5) 유덕희, 전제서, p.61.

6) M. Schoen, Psychology of Music, ch. 8.(N. Y: The Ronald Press Company), 1940, p. 151.

7) Ibid., p.162.

8) Lundin, R. W., An Objective Psychology of Music, New York, The Ronald Press Co., 1953, p. 176.

9) Ibid., p.203.

10) Révész, G.,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Music, Longmans Green and Co. 1946, p.131.

다」¹¹⁾.

(5) J. L. Mursell은 「音樂藝術의 本質이라고도 할 수 있는 音의 組織이나 리듬型에 反應하는 能力이며, 이는 普通사람이면 누구나가 所有하고 있는 普遍的인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音樂性이란 모든 音樂指導의 對象이 될 수 있는 機能으로 學校에 있어서의 音樂教育의 目的은 音樂의 反應 또는 音樂性을 發展시키는 것이다」¹²⁾라고 말하고 있다.

B. 早期 音樂教育의 概念

國民學校 취학적인 幼兒期인 教育을 통틀어서 早期教育이라 부르기로 한다.

幼兒는 一般的으로 身體的, 精神的 發達이 未熟하고 特別히 社會的으로는 자기 中心의 傾向이 強하여 非社會的인기는 하지만 그 發達程度는 대단히 빠르며 人格의 基礎가 確立되는 重要한 時期에 있다¹³⁾. 따라서 幼兒를 對象으로 하는 音樂教育이 過去로부터 내려오는 成人 中心의 立場에서 탈피하여 통합된 活動으로 幼兒生活에 接近하는 것이 教育의 成果를 가져올 수 있다.

幼兒期의 表現的 活動은 人間의 全生애를 통해서 가장 왕성한 時期이다. 그 表現慾을 키워주어서 將來에 豐富한 生活을 하게 하려면 兒童들을 놀이라는 活動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은 進歩된 社會를 갖게 된 것은 人間에게 있어 온 創造力과 表現力의 덕택이라 할 수 있다.

幼兒의 音樂教育은 단순히 音樂教育 뿐만 아니라 동시에 知的教育이라든가 體育 또는 친구와의 社會的 훈련등 綜合教育과도 關聯되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音樂을 中心으로 한 綜合教育을 한다는 것이 音樂教育의 意味인 것이다.

따라서 幼兒에게 音樂의 專門的인 教育을 指導하는 것은 곤란하며 그렇다해서 幼兒에 대한 音樂教育을 빠르다고 생각하여 올바른 音樂의 綜合教育을 부정하는 것은 兒童의 人格教育 그 자체를 부인하는 셈이다. 그러므로 兒童에게 音樂을 指導하는 것은 단순히 音樂教育을 위한 것이 아니라 音樂을 통해서 幼兒의 生活自體를 發達시키려는 것이다¹⁴⁾. 이러한 意味에서 幼兒教育은 전인도야를 위한 정서교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일다.

오늘날 音樂이 지닌 가장 큰 意味는 그것이 成長課程에서 생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點이다. 아름다운 음악은 人間의 마음을 밝고 풍요하게 한다. 따라서 人間の 생활속에 언제나 음악이 깃든 상태의 사람은 행복을 느끼게 된다. 결국 早期教育은

12) Mursell, J. L., The Psychology of School Music Teaching, Silver Burdett CO, 1936, p.146.

13)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서울: 학문사, 1980), p. 189.

14) 劉永明, 前掲書, p.11~12.

어디까지나 生活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 특히 유아에 있어 음악에 의한 교육은 생활교육의 일환으로서 그 緊要性和 不可避性을 지니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音樂教育은 음과 음악미의 이해, 감동, 즉 미적 정서를 함양시키는 정서교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에 대한 음악교육이 음악을 知的으로 이해하고 기술을 주입시키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 이것은 技能注入主義를 초래하여 좋은 환경과 좋은 음악적 가정에 있는 유아에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대다수의 幼兒에게는 부질없는 일이다. 또한 音樂의 기술을 가르치는 일에만 한정시키지 말고 인간교육 전체의 일환으로서 다루어야 한다. 왜냐하면 음악교육은 인간교육의 출발이며 自主的·創造的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교육의 基本이기 때문이다¹⁵⁾.

Ⅲ. 早期 音樂教育의 問題

A. 早期 音樂教育의 必要性

최근 各 方面에서 조기교육론이 대두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국민학교 교육이 그 以前 幼兒教育의 불충분한 탓으로 매우 비능률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취학前 1年을 義務化하자는 主張이 있었고 美國에서는 滿5歲부터 이미 義務教育을 실시하고 있다. 그래서 유치원 교육을 보통교육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유치원 교육이 보급되어 그 교육이 社會性도야에 있는 것이 알려진 까닭이다.

현재 조기교육의 대상으로는 音樂, 美術, 舞蹈, 語學과 같은 特殊한 教育을 3歲경 부터 實施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 教育은 本來 “그 때부터 教育을 시작하는 適當한 時期”라는 말이 더 接近되므로 早期教育이나 才能教育이라는 말보다 早期適時教育이라는 말이 더 適合하다고 생각된다¹⁶⁾.

이렇게 강조되고 있던 早期教育도 실제로는 많은 問題를 안고 있다.

實例로 兒童이 音樂의 아름다움을 느낄 준비도 되기前에 잘못 認識하고 있는 父母나 教師의 強要로 音樂에 대한 興味를 잃게 되는 境遇를 본다.

또한 幼兒期·兒童期の 早期音樂指導는 音樂教育에만 完全히 偏重되는 것보다 舞蹈, 美術과 함께 全體的 感覺을 키워 주어야 하는데 技能教育이 全的으로 優先하는 境遇가 있다는 것이다.

結局 早期教育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일찍 시작하면 좋다는 偏見을 버리고 早期教育을 하되 個個 兒童의 發達狀態에 따라 適期에 指導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早期教育

15) 정세문, 音樂教育, (서울: 대한교육연합회, 한국의 교육 第6輯, 1963), p.78.

16) 유영명, 前掲書 p.20.

이다.

우리나라는 現在 早期教育의 必要性을 많이 認識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그 對象인 幼稚園이나 國民學校 時期의 兒童은 別로 그 惠澤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國民學校 兒童을 가르칠 敎師들의 早期教育과 연관된 音樂的 能年은 개인차가 있지만 低調한 편이다.

B. 音樂的 諸感覺의 發達과 早期 音樂教育

音樂的 成長의 要因으로서의 音樂性 혹은 感覺이나 知覺 등은 身體機關의 反應과 感情이나 知的 機能 등의 精神作用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은 個別的인 것이 아니라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하나의 機能을 構成하는 것이다.

음악 학습지도에 특히 깊게 관련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聽覺의 發達을 들 수 있다.

教育的 의미에서 볼 때 유치원부터 국민학교 저학년 시기는 청각각이 가장 명석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버리면 적어도 훌륭한 음악적 능력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¹⁷⁾.

둘째 運動 感覺의 發達이다.

音樂의 基本的인 요소인 리듬 지각에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運動感覺이다. 이 운동 감각은 資質이나 練習의 程度에 따라 개인차가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발달과정에서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세째, 知覺의 發達이다.

知覺이란 環境에 존재하는 사물이나 現象을 感覺機關을 통해서 明確하게 하는 作用을 말한다. 이 知覺의 發達은 一般的으로 幼兒期와 兒童期의 諸感覺의 發達에 따라 頂點에 달한다¹⁸⁾.

한편 音樂的 機能의 發達을 살펴봄으로써 音에의 反應을 Forbes의 調查(1927)에 의하면 영아는 생후 1년만에 이미 음에 대한 反應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新生兒는 인간의 소리에 반응이 높는데, 부드럽고 낮은 음보다 높고 날카로운 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반응한다고 되어 있다.

발달이란 인간이 태어나면서 가지고 나온 遺傳的 素質이 生後에 發見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전개설, 소질보다는 後天的으로 環境의 影響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環境說이 있으나 근래에 와서는 素質과 環境의 相互作用에 의해서 발달된다는 輻輳說(Convergence Theory)이 많은 認定을 받고 있다¹⁹⁾. 다시 말하면 人間은 아른 모든 生物과

17) 영국의 심리학자 Bachen(1829~1911)이 1937年 研究發表에 의한 것임.

18) 정세문, 前掲書, p.35.

19) 정원식·김주태, 교육심리학, (서울: 채동문화사, 1975), pp.48~49.

마찬가지로 遺傳과 環境의 合作으로 이룩된 소산이다. 어느 한쪽이 결핍되어도 人間은 成立되지 못한다.

音樂의 發達이란 特別히 音樂의 才能이 先天的으로 分化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여러 發達의 側面이 未分化 狀態에 있었던 것이 차츰 分化되어서 音樂의 才能이 되기도 하고 教育的 才能이 되기도 한다²⁰⁾.

그러므로 幼兒의 音樂敎育과 一般人的 音樂敎育은 根本的으로 다른 것이다. 幼兒는 단순히 音樂敎育 뿐만 아니라 동시에 知的敎育이라든가 體育 또는 新舊와의 社會的 訓練 등 綜合敎育과 密接한 關聯이 되기도 한다.

音樂敎育的으로 幼兒期는 極히 重要的 時期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音樂의 能力을 形成하는 여러 가지 能力 중에서 가장 基礎的이며 다른 能力보다 優先으로 해야 될 音樂 感覺力은 幼兒期에서 國民學校 低學年에 걸쳐서 가장 急速한 進歩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遺傳과 環境의 要因中에서 어느 한쪽이 더 크게 作用하느냐의 問題를 가지고 心理學은 오랜 論爭을 거듭하여 왔고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相互作用하느냐에 대한 心理學的 研究課題도 남아 있다.

이처럼 才能은 타고나면서 부터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環境이 주어졌느냐에 따라 길러지는 것이다. 즉 才能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敎育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다.

才能敎育이 이와같이 省하게 된 것은 才能을 단순히 素質的인 것으로만 보지 않는 發達觀의 影響이라고 볼 수 있다.

C. 早期 音樂敎育의 指導

1. 音樂指導의 目標과 價値

音樂敎育의 가장 중요한 目的은 어린 이들을 즐겁게 하는데 있다. 리듬이나 노래를 통해서 어린이들 마음속에 內在되어 있는 긴장과 갈등을 解消시키고 精神健康을 돕는 일이다.

音樂은 긴장을 푸는 가장 좋은 媒介라고 할 수 있으며²¹⁾ 이러한 媒介를 통해서 어린이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表現하고 感情을 순화하고 아름답게 해서 圓滑한 人格이 形成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具體的인 目標을 設定할 수 있다.

1) 어린이들의 놀이나 생활속에서 노래나 리듬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20) 이강옥, 초기 음악교육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1977), p.14.

21) Maramba, Phyllis Newcomb, The Kindergarten of Church, Hartford Seminary Foundation, 1955, p.38.

종류의 노래들을 많이 가르친다.

2) 언제 어디서나 부르고 싶은 노래 혼자서 부르고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종류의 노래들을 많이 가르친다.

3) 리듬이나 다른 악기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친다.

4) 어린이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풍부하게 하고 감정을 순화시킬 수 있는 좋은 노래를 많이 지도하여 노래가 어린이들의 생활속에 흡수되어 항상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한다.

5) 좋은 音樂을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음악이나 리듬을 통해서 창조적인 자기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위에서 제시한 目標아래 다음과 같은 音樂과 리듬의 教育的 價値를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음악과 리듬은 분위기를 명랑하고 幸福하게 하며 프로그램 全體를 連結시켜 주는 役割을 한다.

2) 음악은 어린이들의 정서발달을 도와 정신적 도덕적 생활을 풍부하게 한다.

3) 음악이나 리듬은 集團의 調和를 增進시키고 社會生活을 원만하게 하는데 공헌한다.

4) 노래를 통해서 多方面의 知識을 얻을 수 있다.

5) 노래나 舞蹈에 대한 소질을 發揮함으로써 個人的으로 어떠한 어린이들도 다른 사람들과로부터 認定과 尊敬을 받게 되며 團體에 貢獻할 수 있게 된다.

6) 創造的인 自己表現을 하게 된다²²⁾.

이와같이 幼兒期에 있어서의 音樂教育은 아주 重要하므로 一般教育의 基礎 또는 準備로서의 音樂教育의 指導는 早期에 實施되어야 할 問題인 것이다.

그러나 早期에 있어서 兒童들이 부르는 노래나 音樂은 다음과 같은 一般的인 傾向이나 特徵을 가지고 있다.

1) 어떤 어린이들도 다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에 대한 소질을 갖고 있으나 아직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즉 拍子感, 리듬感, 音程感 등은 확실하지 않다.

2) 話聲과 歌聲의 區別이 별로 없으므로 고함지르는 소리를 내기 쉽다.

3) 여러 사람들과 맞추어서 노래 부르기가 힘들다.

4) 너무 높거나 낮거나 빠른것은 잘 부르지 못한다.

5) 귀로 듣고 記憶하기 좋아한다.

6) 意味가 어려운 노래는 싫어한다.

7) 單音으로 伴奏해야 잘 알아듣는다.

8) 階名으로 부르는 것은 困難하다.

9) 音譜를 理解할 수 없다.

22) 유덕희, 음악교육학 개론(서울: 학문사, 1980), pp.191~192.

10) 오랜 시간동안 앉아서 音樂을 듣지 못한다²³⁾.

2. 幼兒期에 適合한 노래

幼兒期の 音樂教育은 中극적인 目的이 어린이들을 즐겁게 하는데 있다. 그러면 幼兒들이 재미있게 부를 수 있는 노래란 대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며 보면,

1) 노래의 내용이 될 수 있는대로 어린이들의 경험안에 있는 내용을 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노래이다. 季節이나 名節, 自然, 動物이나 새, 家庭사람들의 活動, 기차, 비행기, 배에 관한 것 등과 인사노래, 과장가 등이다. 말은 國語體로 된 것이 좋다.

어린이들은 동물이나 식물도 모두 자기들의 친구같은 친밀감을 가지고 이것들과 접촉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2) 歌詞는 簡單하고 音律과 反復이 많고 모음이 많은 것이 좋다.

3) 文學的 價値가 있는 것, 즉 좋은 詩라야 한다. 兒童들이 부를 수 있는 適合한 詩는,

- ① 內容이 영구적인 진리가 되어야 하고,
- ② 어린이들의 生活에 옮겨 놓을 수 있는 것이며,
- ③ 어린이들의 性格과 情緒를 淨化시키고 아름답게 하며,
- ④ 말도 아름답고 單純하며,
- ⑤ 音律의이며 反復이 많고,
- ⑥ 아동들 자신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어야 한다²⁴⁾.

4) 曲은 4~8마디의 짧은 것이 適當하고 2박자가 많고 3박자, 4박자가 적어야 하며 音程은 1~6程度가 바람직하다.

5) 유아 음악지도의 유의점

- ① 흥미를 중요시 할 것.
- ② 統合的인 指導일 것.
- ③ 音樂的 環境의 設定에 重點을 둘 것.
- ④ Group의 音樂活動에 重點을 둘 것.
- ⑤ 教材의 選擇에 慎重할 것.
- ⑥ 지도시간은 짧고 回數는 많게 할 것²⁵⁾.

23) 半島義友, 谷川貞夫, 平井信義 編著, 現代保育講座3, (東京: 金子書房, 1959.), pp.206~207.

24) Foster, J. C. and Mattson, M. L. Nursery School Education New York : 1939, p.211.

25) 柳德熙, 前掲書, p.196.

IV. 결 론

早期教育에 관해서 理論的 및 實際的인 觀點에서 서로 相反되는 見解가 있다. 하나는 人間の 여러 心理的 特性 및 才能은 遺傳에 의해서 주로 決定된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後天的으로 造成된 環境의 影響과 教育 等에 의해서 그 特性과 才能이 開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理論들 가운데 前者의 境遇 音樂教育은 소수의 天才的 才能을 위한 것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本論에서 考察하여 본 여러가지 早期 音樂教育의 問題들은 後者의 境遇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音樂의 早期教育의 하나의 技術에만 치우칠 것이 아니라고 본다. 早期教育을 보다 體系的·效果的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幼兒를 둘러싸고 있는 環境이 幼兒의 音樂的 能力 開發에 맞도록 音樂의 雰圍氣가 造成되어야 하겠다. 그 環境 가운데에서도 어린이 人格形成과 音樂 能力의 開發에 가장 큰 影響을 미치는 곳이 家庭環境이므로 家庭環境을 音樂的 環境으로 造成함이 무엇보다도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音樂教育은 아직도 兒童으로 하여금 專門的으로 또는 하나의 技術面으로만 치우치려는 傾向이 있는데 父母들의 지나친 욕심이 그런 結果를 招來한다.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부담감만 느끼게 할 뿐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音樂을 더 싫어하게 하는 原因이 되는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상으로 音樂教育에 있어서의 早期教育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結論을 얻을 수 있다.

- 1) 音樂의 早期教育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며 그것을 좋은 音樂的 環境을 통해서 造成할 수 있다.
- 2) 音樂의 生活化를 위해서 音樂的 環境의 造成과 教育이 並行되어야 하며 어릴 때부터 體系的인 音樂教育의 프로그램이 考慮되어야 한다.
- 3) 國民의 音樂性 教育을 위해서는 幼兒期부터 音樂的 環境造成이 必要하다.
- 4) 國民의 音樂性 育成을 위해서는 學校 音樂教育을 深化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音樂的 環境의 造成과 音樂的 訓練의 徹底化가 要請된다.

궁극적인 目標로서 하나의 敎養을 높이고 完全한 人格을 갖추게 하며 音樂을 통하여 情緒를 도야하고 生活에서 音樂美를 追求, 나아가서 그것을 自然스럽게 表現할 수 있는 技能 鍊磨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認識하여 어린이들에 대한 早期教育의 具體적이고 效果的인 方法이 더 活潑히 研究되어야 하겠다.

참 고 문 헌

- 金敬任, 音樂의 早期教育에 관한 認識 및 實態에 대한 調査研究,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1976.
- 金在恩, 教育心理社會 研究方法, 서울 : 益文社, 1972.
- 柳德熙, 音樂教育論, 서울 : 開文社, 1983.
- , 音樂教育學 概論, 서울 : 學文社, 1980.
- 劉永明, 音樂의 能力에 미치는 早期教育의 效果 延世大學校 教育大學院, 1973.
- 李康玉, 早期 音樂教育의 效率性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1977.
- 李允榮, 高等學校 音樂教育의 實態 研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74.
- 李珍雨, 音樂教育의 理念과 指導方法에 관한 研究, 慶熙大學校, 教育大學院, 1976.
- 丁淳睦, 藝術의 教育, 서울 : 배영사, 1970.
- 정세문, 音樂教育, 서울 : 大韓敎聯, 韓國의 教育 第6輯, 1963.
- 정원식·강주태, 教育心理學, 서울 : 제동문화사, 1975.
- 板野平, 新新音樂教育, 東京 : 全音樂譜出版社, 1969.
- 眞條將, 音樂教育事典, 東京 : 東洋館出版社, 1965.
- 배아재, 兒童心理學, 金在恩 譯, 서울 : 益文社, 1972
- 半島義友, 谷川井夫, 平井信義, 現代保有講座, 東京 : 金子書房, 1959.
- Foster, J. C. and Matsan, M. L., Nurery School Education, N. Y., 1939.
- Maramarco, Phylis Newcomb, The Kindergarten of Church Hertford Seminary Foundation, 1955.
- Lurdin, R. W. An Objective Psychology of Musiv,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 1953.
- Mursell, J. L, The Psychology of School Music Teaching Silver Burdett Co. 1936.
- Ré vé sz, G. Introduction to the Psychology of Music Longans Green and Co. 1946.
- Seashore, C. E. The Psychology of Music Talent, New York : Silver Burdett Co. 1919.

ABSTRACT

A Study on Early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for Developing Musical Talent

Chung, Won Young

I aimed to study about early education in music education. The result was as follows.

- 1) Early education is desirable in music education, and it can be accomplished by creating, musical environment.
- 2) In order to make a person enjoy music in daily life, we have not only to make his home environment musical from his early childhood and but also to educate him with a systematic music education program.
- 3) In order to promote the people's understanding on music, (a) we have to create musical environment for them from their early childhood, and then, (b) we have to strengthen music education at school.

Aims of music education are to raise cultural level, to cultivate character, to refine emotion, to enjoy music in daily life, and to improve musical skill which will be helpful to express oneself freely. Consequently, music education is very important for improving the quality of our life. Therefore, we have to study harder to find out effective and specific programs for the early education in music education.